

아침論壇



柳錫春

언론마다 미국과의 월드컵 경기에서 보여 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응원문화를 분석하느라 법석이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펼쳐진 거리에서의 응원전이 놀랄 만큼 질서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수십만명이 모인 시청 앞의 거리 응원전이 혹시 반미시위로 비화하지나 않을까 혹은 무질서한 뒷모습을 남기지나 않을까 하던 걱정은 결국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거리응원전 질서 돋보여

우리의 젊은이들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청소까지 깨끗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전·후반 내내 우세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무승부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로서는 정말 아쉬운 경기였다. 그러나 이날 비록 16강 진출을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숙한 국민 특히 성숙한 젊은이들을 가진 '희망의 국가'라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응원과 반미를 구분할 줄 아는, 그리고 승부를 떠나 최선을 다한 모습에 격려와 박수를 보낼 줄 아는 국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문화의 병폐를 고발하는 논문을 90년대 중반 발표한 바 있다. '혼자 볼링하기(Bowling Alone)'라는 제목이 붙은 이 논문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목전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고 자신의 관심에만 빠져든 나머지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관심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젊은이들이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통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미국을 보며 퍼트남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위기를 우울하게 예측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젊은이들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90년대 이후 이른바 신세대 담론이 전개되면서 공동체적 관심보다는 개인주의적 관심이 우세한 신세대 문화를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가 고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현상을 일컫는 '코쿠닝(cocooning)'이란 단어가 대중매체에 등장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의 일이다. 또한 익명성을 무기로 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서핑과 접속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를 두고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기도 했다.

그러나 월드컵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혼자 볼링하며 소외를 자초하는 자폐증 환자들이 결코 아님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수십만명이 거리에 나와 함께 응원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고, 또 함께 청소까지 하고 돌

아가는 모습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퍼트남이 우려한 미국의 젊은이들과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함께 응원하기'와 '혼자 볼링하기'가 함축하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앞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는 데 우리가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잠재력을 어떻게 공동체적 관심으로 모아갈 수 있는가.

공동체 거부한 일부 젊은이

공동체적 관심의 실현이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름은 참여를 거부하는 고립보다 의미 있다. 방법의 차이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은 그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동참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11일 정년을 맞은 노 교수의 마지막 강의에 '깡판'을 친 행위는 공동체적이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4년에 한번 찾아오는 지자체 선거를 외면하고는 이 땅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담겨 있는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연세대 교수·사회학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문화